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DMZ 155마일 걷기 대장정'



[앵커]

비무장지대 일원을 걸으며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키우는 'DMZ 155마일 걷기' 원정대가 15박 16일의 일정을 어제(20일) 마무리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경기도와 강원 접경지역 등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이팅!"]

구호를 외치며 한발 한발 힘차게 걸음을 내딛는 원정대원들.

길을 걷다 보면 지칠만도 하지만 환한 웃음만은 잃지 않습니다.

지난 5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과 인제 등을 거쳐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 이르기까지 15박 1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DMZ 155마일 걷기.

경기도 구간은 평화누리길 코스를 중심으로 연천 지역 주요 관광지인 물론 민동선 내 승전 OP 등을 지나왔습니다.

[정진우/DMZ 155마일 걷기 참가자 :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거를 제가 처음 느꼈어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먼 길을 걸어온 100명의 원정대원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비무장지대 걷기는 대원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영희/DMZ 155마일 걷기 참가자 : "아 맞아, 내가 여기에 우리 평화통일,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한 걸음 보태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DMZ가 지닌 문화와 역사도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토크콘서트'와 '작은음악회' 등도 일정 속에 함께 진행했습니다.

15박 16일 동안 이어온 원정대원들의 특별한 발걸음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뜻깊은 시간들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평화통일 염원' DMZ 155마일 종주행사 완료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걸으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경기도주최 DMZ 155마일 걷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100여명은 지난 5일 임진각 출정식을 시작으로 DMZ 동쪽 끝 강원 고성에서부터 파주에 이르기까지 15박 16일간 경기-강원 DMZ 일원을 종주하고 어제 임진각에서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와 산악지형에도 이들의 발길이 닿은 구간은 강원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연천, 파주 등 250km에 이릅니다.

세계일보

2019년 08월 21일 (수)

전국 12B면

“DMZ 역사·가치 배워요”

경기, 청소년탐험대 모집

9-10월 파주·연천서 탐방행사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ogya.com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9~10월 파주·연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비무장지대(DMZ) 청소년탐험대 특별프로그램 ‘평화생명의 DMZ 정훈오감(五感)을 깨우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DMZ 일원에서 다양한 탐험 활동을 통해 DMZ 역사와 생태학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진행된 정규 프로그램은 4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현장탐방을 연계한 모동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9~10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 중 1~3회는 파주에서, 4회는 연천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DMZ 즐겨찾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참가비는 회당 1만5000원이다.

참가자는 평화누리길, 임진각 생태탐방로, 도리산전망대, 제3땅굴,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 도보탐방과 더불어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청, 영화·연극·음악·역사 특강 형태로 DMZ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청소년 참가자 외에도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DMZ 청소년탐험대를 연수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선발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행사 종료 후 교육참가 수료증과 136 봉사시간 8시간이 부여된다.



고성에서 파주까지 16일의 대장정 'DMZ(비무장지대 155마일 걷기' 대원 100여명이 20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해단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임진각에서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DMZ 동쪽 끝 강원도 고성군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까지 15백16일간 경기, 강원 DMZ 일원 155마일 걷기 여정을 무사히 마쳤다. 파주=뉴스



DMZ 155마일 걷기 대원 100여 명이 20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개최된 해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DMZ 155마일... 평화 염원 발길 대원들 15백16일 대장정 마쳐

"DMZ 155마일 재가 걷은 평화와 번영의 길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일 오전 11시30분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DMZ생태관광지원센터. 태극기를 앞장세운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희망에 찬 미소를 머금은 채 힘찬 걸음으로 등장했다. 발걸음의 주인공들은 통일을 염원하며 '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 행사에 참여한 100여 명의 대원들이다. 지난 5일 임진각에서 출정식을 한 대원들은 DMZ 동쪽 끝인 강원 고성군에서부터 파주시까지 15백16일간 경기-강원 DMZ 일원 155마일 걷

기 여정을 무사히 마쳤다. 이들은 30도를 넘는 찌는 듯한 무더위와 거센 폭우, 산악지형에도 굴하지 않고 강원 고성군과 인제, 양구, 화천, 장원을 거쳐 경기도 연천, 파주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km를 뚫뚫하게 걸어 왔다. 대원들은 DMZ 곳곳을 두 발로 걸으며 역사와 생태를 몸소 체험했고, 통일대교와 승전OP, 민통선 구간 곳곳에서 바라본 비경에 연신 감탄을 자아냈다. 이들은 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의원들과 함께하는 도크 콘서

트에서 DMZ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 함께 종주 여정 영상을 보며 그간의 추억과 감동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완주에 성공한 100명의 대원에게는 완주증과 완주 배지가 수여됐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설명과 평화의 숨 쉬는 DMZ의 의미를 전하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고자 마련됐다. 최현호기자

道평화원정대 'DMZ 155마일' 도보 완주

100명 고성-파주까지 250km
폭염·폭우속 15박16일간 탐방

분단 반세기 아픔을 간직한 DMZ 155마일을 온 몸으로 겪은 평화원정대가 15박16일의 여정을 마쳤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임진각에서의 출발식을 시작으로 DMZ 동쪽 끝 강원 고성군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까지 15박 16일간 경기·강원 DMZ 일원 155마일을 도보로 탐방한 100여 명의 원정대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 도착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거친 폭우, 산악지형에도 진행된 이들의 여정은 강원 고성군에서부터 안제,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연천, 파주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km에 달한다.

대원들은 DMZ 곳곳을 두 발로 걸으며

역사와 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데 뿌듯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통일대교 도보행단이나 승전OP 등의 탐방은 물론,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 내 비경에 연신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화영 평화부지사,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DMZ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자유로이 이야기하며 마치 통일이 한반도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총주대장을 맡은 김혁면 씨는 "평화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횡단하는 DMZ를 걸으며 더욱 감명이 깊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이날 마지막 총주를 맞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완주에 성공한 100명의 대원들에게는 완주증과 완주메지가 수여됐으며, 그간의 총주여정 영상을 함께 보며 추억과 감동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졌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로 가는 길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155마일의 DMZ 여정을 마친 100명의 발걸음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꿈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를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됐다.

홍영민기자

경기신문

평화·생명 오감체험... DMZ 청소년탐험대 운영

도·경기관광공, 내달~10월
총 4회 파주·연천 일대에서 개최

캠프 그리브스 등 도보탐방
각계각층 전문가들 특강도

영화·연극·음악·역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DMZ 일원을 돌아보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DMZ 청소년탐험대 특별 프로그램-평화 생명의 DMZ 청춘 오감(五感)을 깨우다'가 파주와 연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4회에 걸쳐 파주, 연천 일대에서 'DMZ 청소년탐험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다양한 탐험활동을 통해 DMZ의 역사와 생태학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파주에서 9월 7일과 28일, 10월 5일에, 연천에서는 10월 12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평화누리길, 임진각 생태탐방로,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을 도보탐방하게 된다.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 영화·연극·음악·역사 특강 형태로 DMZ를 만나 보는 시간도 갖는다.

1회는 백정우 영화평론가가 '영화로 보는 DMZ-DMZ 지뢰밭에 부는 평화의 바람'을, 2회는 북한연극 전문가 김정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교수가 '연극으로 보는 DMZ-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3회는 김이곤 예술감독이 '음악으로 보는 DMZ-음악에 꺼내려간 분단과 이별의 아픔'을, 4회자는 '큰별쌤'으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가 '역사로 배우는 DMZ-전쟁과 평화'에 대해 특강한다.

참가신청은 'DMZ 즐겨찾기 홈페이지(<http://dmz.ggtour.or.kr>)'에서 하면 되며 참가비는 각 회당 1만5천원이다.

각 회당 120명씩 총 48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 참가자 외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탐험대 인솔 자원봉사자도 선발중이다.(문의: 운영사무국 02-3274-9319)

/안경희기자 ina@

평화통일 염원... DMZ 155마일 걷기 완주

대원들 100명, 입진각서 해단식
15박 16일간 250km 여정 마치
"역사·생태 몸소 체험 뿌듯"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걸으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 행사가 20일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여한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대곡기를 앞세우며 파주 입진각 평화누리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 입성, 여정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 5일 입진각 출정식을 시작으로 DMZ 동쪽 끝 강원 고성에서부터 파주에 이르기까지 15박 16일간 경기·강원 DMZ 일원 155마일 걸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와 산악지형에도 이들의 발걸음이 닿은 구간은 강원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연천, 파주 등 250km에 이른다.

대원들은 DMZ 곳곳을 두 발로 걸으며 역사의 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데 뿌듯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통일대교 도보행단이나 승전OP 등의 탐방은 물론,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 내 비경에 연신 감탄을 자아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DMZ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얘기했다.

종주대장 김학민 씨는 "평화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횡단하는 DMZ를 걸으며 더욱 감명이 깊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



'DMZ 155마일 걷기' 여정에 나선 100여명의 대원들이 20일 오전 여정의 마지막인 파주 입진각 평화누리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 도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이날 마지막 종주를 맞아 신명섬 도 평화협력국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완주에 성공한 100명의 대원들에게는 완주증과 완주배지가 수여됐다.

그동안의 종주여정을 담은 영상을 보

며 그간의 추억과 감동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열린 '평화대 국민·유연군 참전 유공자 오찬'에서 화제가 됐던 '교과 외교관' 함병 에아시아 (13·부산 용문초) 양,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도 몬디' 씨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신명섬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로 가는 길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

이라며 "155마일의 DMZ 여정을 마친 100명의 발걸음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꿈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를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했다. /인경환기자 inph

기호일보

도 'DMZ 청소년탐험대' 모집... 파주·연천서 4회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내달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4회에 걸쳐 파주·연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DMZ 청소년탐험대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 중이다라고 20일 밝혔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2013년부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다양한 탐험활동을 통해 DMZ의 역사와 생태학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8

월 10일까지 진행된 정규 프로그램은 40여 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현장탐방을 연계한 모듬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9월 7일, 28일, 10월 5일, 12일 총 4회 진행된다. 1회와 3회는 파주에서, 4회는 연천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평화누리길, 입진각 생태탐방로,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 도보 탐방과 더불어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청해 영화·연극·음악·역사특강 형태로 DMZ를 만나 보는 시간을 갖는다.

DMZ 즐겨찾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1회당 1만5천 원이다. 1회당 120명씩 총 480명을 모집한다.

그 밖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DMZ 청소년탐험대를 인솔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선발 중이다. 자원봉사자에게는 행사 종료 후 교육 참가 수료증과 봉사활동 8시간이 부여된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